7천만원 짜리 한우 아십니까

영암 푸른농장 서승민씨 한우능력평가 대통령상 출품 2마리 최고가 낙찰

국내 한우 최고가인 6904만원에 팔린 서승민씨의 한우(왼쪽)와 6200만원에 낙찰된 한우의 출하 전 모습.

전남지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란 한우 한 마리가 6904만원에 팔리며, 국내 한우 최고 가격을 10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남도는 4일 "영암군 미암면 신한리 서승민(푸른농장·52)씨가 키운 한우 한 마리(30개월·950kg)가 제15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6904만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1kg당 14만4444원에 달하는 가격이며, 이 대회에서 10년 전 기록한 3300만원을 훌쩍 뛰어 넘었고, 높은 값을 받는 거세수소 평균 496만원(10월말 기준)보다 14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서씨가 함께 출품한 다른 소도 6200만원에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잘 기른다는 96농가에서 128마리의 한우가 출품돼 지방도, 육질, 맛 등을 평가받았다.

서씨는 이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그가 출품한 한우 두 마리는 서울 강남의 유명 쇠고기 유통업체와 한 백화점 본사가 각각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단골 고객과 VIP를 위한 시식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 소들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소가 이처럼 고가에 팔린 것은 철저한 품종 개량과 관리, 좋은 먹이 공급 덕이었다.

서씨는 지난 1980년부터 암소 개량을 꾸준히 하면서 좋은 육질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다. 모든 송아지에는 어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인식표를 붙이고, 출하를 통해 몇 마리의 송아지가 1등급을 받는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좋은 어미를 골라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최상의 어미 소에게서 송아지를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출하한 30두의 소 중, 한 마리가 2등급을 받자 더 이상 해당 어미 소에게서 송아지를 받지 않은 적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서씨의 송아지는 태어나기 무섭게 인근 농장으로 팔려가고 있다.

또 송아지들은 두터운 깔짚 위에서 볏짚과 청보리 등을 섞어 만든 '안전배합발효 사료'를 먹고 자란다.

농장은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축사 지붕을 주기적으로 개방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농장 입구 차량소독기는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 우수 종자를 지키기 위해 소독에도 남달리 신경 쓰고 있다.

서씨의 농장은 곳곳에 잔디가 깔리고, 다양한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는 등 여느 농장 풍경과 다른 것도 특징이다. 서씨는 "좋은 종자를 받아 좋은 먹이를 주며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1등급 소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청신호

KDI 예타 조사 결과 경제수치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분석(B/C) 수치가 4.38로 나와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며 4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남도는 4일 "흑산도 소형공항의 B/C가 4.38이라는 것은 100원을 투자해 목표기간 안에 438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여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KDI는 지난 1월부터 사업 예정부지를 현장확인하고 투자 효율성, 실제적 필요성, 간접효과, 지자체의 의지 등을 점검했다.

흑산도 소형공항은 활주로 1200m 50인승 이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규모로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된다. 그동안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신안군 자체 용역이 실시됐고, 예정 부지 81만5000㎡ 가운데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53만㎡ 중 65% 이상도 이미 매입됐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흑산도에 연간 4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1시간 이내 거리인 중국 상해 등의 중국 관광객을 유인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나로호 발사 일정 이르면 오늘 결정

발사관리위 회의…'고무 링' 결함원인 밝혀질 듯

나로호 3차 발사가 연기된 원인과 추후 발사 일정이 빠르면 5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4일 "나로호 발사 중단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고무 실(seal) 파손 원인에 대한 한·러 연구진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제7차 '나로호 3차 발사관리위원회' 회의를 5일 오전에 연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지난달 26일 나로호 연료 공급라인인 연결포트(CD-2)의 밀봉용 고무 실 파손을 발견하고 발사일정을 돌연 연기했으며 러시아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러 연구진의 나로호 고무 실 파손 현상의 추가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이달 9~24일로 잡힌 3차 발사 예정일 내 발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교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무 실 파손 정밀분석 결과와 발사 추진 방향에 대한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상상황에 의한 연기 요인을 제외하고는 발사기준일을 최소 7일 전에 결정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農의 미학' 제 9회 광주비엔날레가 마련한 25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자전거로 둘러보는 '달리는 마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아차 자전거동호회원들이 3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개구리논에서 벼베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한새봉 개구리논은 일곡동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경작 농경지로, 비엔날레 기간 '농(農)의 미학'이라는 주제의 전시장으로 바뀌었다. /최현배기자 choi@

'엑스포 팝 페스티벌' 공연·가수·관객 최다 3관왕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지난 여름, 여수 밤 바다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 '엑스포 팝 페스티벌'이 최다 공연횟수·가수 출연·관객 동원 국내 3관왕 기록을 달성했다.

2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인 지난 6월 16~8월 11일 치러진 '엑스포 팝 페스티벌'이 공연 횟수 57회, 출연 가수 166개 팀 496명, 관객 수 85만3793명 등으로 국내 공연사상 '3개 부문 최다 신기록'으로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했다.

박람회장 특설무대와 엑스포디지털갤러리 등에서 열린 엑스포 팝 페스티벌에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전설급 가수 이미자, 패티김, 아이돌 가수 슈퍼주니어, 씨앤블루, 인피니트, 걸그룹 소녀시대, 씨스타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였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대한민국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세계 기록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정승조 합참의장, 나로호 軍지원 현장 점검

정승조〈사진〉 합참의장은 2일 나로호 발사 지원작전을 수행하는 군의 현장작전지휘본부를 방문, 완벽한 임무 수행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핵안보정상회의와 여수 세계박람회, 1·2차 나로호 발사 때의 경호·경비작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은 나로호 발사체가 한국에 도착한 8월29일부터 3단계로 경계 작전을 수행해 왔다.

육군은 나로우주센터 외곽에서 수색정찰 및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를 운영중이다.

해군은 초계함과 고속정을 투입해 해상차단 작전과 해상초계 임무를, 공군은 전투기 긴급출동 대기 임무를 맡고 있다.

발사 당일 공군은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를 투입해 공중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해군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유성룡함을 파견해 나로호의 비행궤도를 추적할 계획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발사구역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발사 D-2일부터는 비행금지구역과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정 의장은 이어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주요 시설인 원전이 외부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군·경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亞문화산업투자조합 광주업체에 첫 투자

광주지역 문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190억원 규모로 결성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 처음으로 광주지역 업체에 투자한다.

4일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운용사인 ㈜리딩인베스트먼트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업체인 아이스크림㈜에 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2010년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지원 업체로 선정해 3억2000만원을 지원한 아이스크림㈜은 기술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업체다.

아이스크림㈜은 투자비 18억원 규모의 어린이교육용 애니메이션 '두다다다쿵'을 EBS와 공동 제작해 2013년 9월 방영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은 (유)다이고로 등 문화콘텐츠 업체 3곳에도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2013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작성		2012.11.16.(금)~2012.11.23.(금)09 : 00~18 : 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2.11.19.(월)~2012.11.23.(금)09 : 00~18 : 00 (마감일도착분까지유효)
	창구	2012.11.19.(월)~2012.11.23.(금)09 : 00~18 : 00
전형일정		2012.12.05.(수)10 : 00~
합격자발표		2012.12.18.(화)11 : 00(산업대학원홈페이지)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
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공학/농업개발학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20명) : 전자공학전공/컴퓨터공학전공
문의: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 : //altair.chonnam.ac.kr/~gi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 입니다.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삼성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더블유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운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아세아 · 주차장 · 서울 · 기아 · 광천터미널 · 신세계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